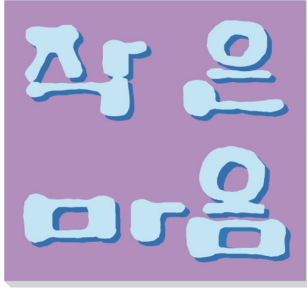


예수님을 닮아 사는 우리들의



제2380호 2024. 12. 22. **대림 제4주일**

제1독서 : 미카 예언서 5,1-4 ㄱ

제2독서 :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10,5-10

복 음 : 루카 복음서 1,39-45

발 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주 소 : 03083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회관 내 '작은마음'

이메일 : chota_littlemm@naver.com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루카 1,45



그림_ 가브리엘라 수녀님



오늘의 미사

- ★ 화 답 송 ◎ 주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 알렐루야.
- ★ 영성체송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신부님 말씀

오늘부터 내가 할 일은?



18지구 목3동 성당
함승수 세례자요한 신부님

✦ 찬미 예수님!

작은마음 친구들, 대림시기 잘 보내고 있나요? 오늘은 대림 4주예요. 이제 한 주만 더 지나면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성탄이랍니다. 신부님은 초등학교 시절, 성탄 대축일이 가까워지면 마음이 두근거리면서 설레었어요. 성탄 선물로 무얼 받을까 생각하기도 하고, 성당에서 하는 발표회 준비를 하면서 무대에 올라갈 생각에 괜히 부끄러워지기도 했지요. 반짝거리는 성탄 트리를 보면서 씩 웃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당 마당의 빈 구유 앞을 지나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기 예수님이 저 구유에 오시는데, 나는 뭘 해드려야 하지?’ 그 전까진 내가 받을 선물, 내가 걸 시간만 생각했었는데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 조금 부끄러워졌지요.

우리 모두를 위해 차갑고 좁은 구유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께 우리는 무얼 해드릴 수 있을까요? 아직은 작고 어린 나이지만,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하루에 한가지씩 착한 일 하기. 자기 전 예수님께 기도하기. 아침에 일어나 성호 긋기. 어쩌면 작고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따스한 마음이 된답니다.

이제 성탄까지 몇일 남지 않았네요. 오늘부터라도 곧 오시는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마음도 크게 받아주시는 분이라는걸 잊지 마세요!



소금통

Q. 오늘 복음 말씀에서 엘리사벳이 한 말과 가장 관련있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 ① 성호경 ② 성모송 ③ 영광송 ④ 주님의 기도

작은 마음

2024. 12. 25. **주님 성탄 대축일**

제1독서 : 이사야 예언서 52,7-10

제2독서 :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1,1-6

복음 : 요한 복음서 1,1-18 또는 1,1-5.9-14

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주소 : 03083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회관 내 '작은마음'

이메일 : chota_littlemm@naver.com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성탄의 은총이 우리 친구들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을 왜 기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이란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인데,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지 않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어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믿을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이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한다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느님을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남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구유에 누워있는 너무나 연약한 아기 예수님 곁에 우리도 머물러 보아요.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김동선 요한마리아비안네 신부님



오늘의 미사

★ 화답송

★ 복음환호송

★ 영성체송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 알렐루야.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그림_ 가브리엘라 수녀님

아기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준비물 : 풀 또는 양면테이프,
가위, 티라이트초



전체-----은
접는선입니다.

★에
풀이나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②에 붙입니다.



색이 있는-----
반대편 쪽에 풀이나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① 뒤에 붙입니다.



①



②

